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 등 회

봄내음 품은 맑은 구름 남북 오가듯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5월16일 오후4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사부대중 5만여 명이 참석한 연등법회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는 특히 광복 70년이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열된지 70년이 되는 해다. 사부대중들은 연등에 불을 밝히고 불향기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오르듯, 맑은 구름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듯 아무런 경계도 차별도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소원했다. 김형주 신재호 기자



2



3



4



5



6



1



7

①진제종정예하, 원로 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②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관불을 하고 있다. ③연등회에 참여한 사찰들은 매년 새로운 등을 만들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 ④여울림마당에 참가한 연희단 모습. ⑤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연등회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⑥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버스 만화캐릭터. ⑦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많은 태극기 등이 등장했다. ⑧커다란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학생들. ⑨국악공연으로 제등행렬은 더욱 흥겹다.



8



9